

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근대화를

대통령당선 경축 국내인사들을 위한 만찬연설

1981년 3월 4일

내빈 여러분!

본인은 오늘 본인의 제12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

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새 공화국의 출범을 기뻐하면서 아울러 위대하고 영광된 새 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앞으로 우리는 그간 이룩한 개혁과 발전의 기반을 토대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알찬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.

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,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경제발전, 질서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, 민주와 창의의 문화를 창달하는 일 등은 80년대를 맞이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. 이러한 과업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의 일이 아니며, 우리 국민 모두가 한데 뭉쳐 밀고 나가야만 이룩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입니다. 또한 국제정치면에서 격동과 혼란이 예상되는 80년대의 격랑을 뚫고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의 지도층 인사 여러분들이야말로 국민의 대화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 새시대 개척을 위한 국민총참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.

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새 역사창조를 위한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헌신을 당부하는 바입니다. 우리 모두 새 공화국의 희망찬 출범과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다같이 건배합시다.